Vol.127
2024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11·12월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Mapping a better future...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한국한센총연합회 소개



한국한센총연합회는...

1969년 10월 13일 발족되어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핵심가치

- HARMONY —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의 소통을 통한 편견 해소
- HOPE — 한센가족의 사회통합과 재활에 대한 소망 실현
- HAPPINESS — 전 세계 한센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

★ 비전 ★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 한센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구축
- 한센사업 전문기관으로 역량 강화

★ 미션 ★

- 한센인의 보건 복지 증진
- 한센인의 권익 보호 강화
- 한센인의 사회 통합 지원
- 한센인의 인권 신장 확대





★ 사업목표 ★

- 한센인 관련 법, 제도 등의 개정 및 제정
- 한센인의 보건복지 등 삶의 질 향상
- 한센 관련 단체와 연대 강화
- 한센인(병)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 한센인 권익 증진
- 한센인 사회 통합 지원
- 미래지향적인 한센정책 수립
- 국제 교류 협력 확대
-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한센 관련 정책을 통한 주도적 위상 제고



★ 사업소개 ★



★ 로고 ★

Mapping a better future...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한센가족(hansen)을 상징하는 'h'로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가 눈높이를 맞춰 소통으로 하나되고 대한민국 한센사업의 통합과 한센가족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 실현을 위한 열정을 형상화함

| 총연합회 공식 SNS 채널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트위터 · 페이스북

CONTENTS

한센포커스

02 **인사말**
-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전하는 감사의 마음

04 **스페셜 리포트**
-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14 **한센 리포트**
- 2024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 발간
- 한센 현안 사항 협의
- 시·도 지부장회의
- 한센병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 및 현장점검
- 한센사업 외부평가 회의
- 한센인 합동결혼식
- 치매예방교육
-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한센탐방

28 **지부는 지금**
- 전북지부
- 경기지부

33 **유관단체동정**
- 한국한센복지협회
- 한국IDEA협회

36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한센공감

38 **함께하는 한센**
- 늙음의 세월
  박우택(서울·중부지부장)
- 신생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
  김승하(한국치매예방협회 김해지부 대표)
- 소아마을 치매예방교육에서 피어난 미소
  박우연(미래로교육연구소 소장)
- 전봇대_김정현
  (안동성좌원 복지기획과 팀장)

한센이모저모

46 **한센병 바로알기**

50 **정보알리미**
- 오래된 허리 통증, 한의학으로 개선한다
- 혈관 속 미세플라스틱 줄이는 방법
- 요즘이책

62 **독자들의 공간**
- 가로세로 낱말퀴즈
- 한센게시판
-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한센사업 외부평가 위원회

Mapping a better future...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제22권 제6호 통권 제127호 발행일 2024년 11·12월호 발행인 이길용 편집인 우홍선 발행처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전화 1566-2339 팩스 1566-2032 홈페이지 www.hansenkorea.org
이메일 hansen@hansenkorea.org 디자인&인쇄 디자인앰퍼샌드 격월간 비매품
※「한센」은 일반회계(국고지원)의 지원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전하는 감사의 마음



사랑하는 한센 가족 및 후원자 여러분!

어느새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뜻깊은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부딪치고 도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고, 그 여정 속에서 소중한 성취와 따뜻한 기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한센 가족들과 함께 많은 이들이 한센인들의 복지와 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총연합회는 여러 의미 있는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센인 피해사건 위로지원금 증액을 위해 힘쓰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한센인 가족 피해보상을 꾸준히 추진하며, 국가와의 협업을 통해 한센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법적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는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정부 관계자와 유관 단체들로부터 격려의 메시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섯 쌍의 한센 부부들에게 합동결혼식을 열어드려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었고, 노년 생활플러스교육과 치매예방교육을 통해 한센 가족들이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나아가, 전국 81개 정착마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센 가족의 생활과 복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설계하는 귀중한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사랑하는 한센 가족 및 후원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나눈 모든 기쁨과 아쉬움은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며, 내년을 향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따뜻한 마음과 격려는 큰 힘이 되어 한센 가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동행이자 희망의 원천이 되어 함께 한 해를 보낸 것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센 가족분들과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쌓아온 경험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욱 견고히 비추어주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했지만, 함께 극복하며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낸 한 해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혼자였다면 쉽게 지쳤을 순간들도 서로의 성원과 격려로 함께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나눈 모든 기쁨과 슬픔, 환희와 아쉬움은 우리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난 경험이 씨앗이 되어 우리 각자 그리고 한센 가족 모두에게 의미 있는 열매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든든한 동행이자 희망의 원천이 되어 한 걸음씩 더 나아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 많은 웃음과 좋은 일이 여러분의 곁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목표와 바람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 **이 길 용**



차별을 넘어 공감으로, 희망을 잇는 편견 해소의 장
-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



총연합회는 12월 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총연합회와 조계원 국회의원이 주최·주관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MBC, KBS, SBS, 한겨레신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후원하는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센인 가족을 비롯한 전현희 국회의원, 문금주 국회의원, 차규근 국회의원, 김춘진 前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유관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대한민국 한센 대상 특별상 및 부문별(복지·학술·언론·봉사·의료) 시상 ▲대한민국 한센인 대상 시상 ▲감사패 시상 ▲총연합회 한센 관련 사업 동영상 상영 및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이 진행됐다.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는 한센인의 인권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널리 알리고,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로,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향상 및 한센인 화합과 한센병에 대한 차별, 편견 해소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회적 통합 실현을 위한 자리가 되었다.

이길용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센 가족과 국민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더 나아가 한센인들의 인권과 복지의 토대 위에서 재활과 자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문금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한센인 여러분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차규근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

"한센병 소송지원변호인단 활동은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한센인 여러분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김춘진(前국회의원)

"한센인의 인권 문제는 강자가 약자를 포용하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소록도를 인권 교육의 세계적인 현장으로 삼아, 이러한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저 또한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4 대한민국 한센대상 특별상 수상



'2024 대한민국 한센대상 특별상'은 한센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법안 마련과 민원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전현희·성일종·박주민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전현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 전국에 있는 한센인 정착마을을 직접 방문해 보았는데, 열악한 주거 환경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이후 정착마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도 한센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며,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전현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

공적내용

한센인의 실태 파악을 통한 해결책 마련과 각종 민원 해결을 통해 한센인의 자활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한센인과 비한센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함



성일종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

공적내용

지역 내 영락마을 한센인을 위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오랜 시간 한센인의 곁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등 한센인의 인권 회복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공적내용

변호사 활동 때부터 한센인 일제강점기 보상 관련 활동을 통해 한센인의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재는 국회에서 한센인의 각종 민원 및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2024 대한민국 한센대상 부문별 수상



대한민국 한센인 대상은 한국한센총연합회 박행남 이사에게 수여되었으며, 한센대상 시상의 부문별 수상자는 ▲복지 부문 김완규 도의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학술 부문 김재형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언론 부문 장현은 기자(한겨레신문 사회부) ▲봉사 부문 강인택 본부장(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 ▲의료 부문 김소정 주무관(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 감염병관리팀)에게 수여되었다. 아울러 대명마을 도시개발사업 장진용 조합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상 박행남 이사 (한국한센총연합회)



▲감사패 장진용 조합장 (대명마을 도시개발사업)

수상자 소감 한마디!



한센인 대상 박행남 이사

앞으로 더 열심히 섬기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그 뜻에 부응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



복지부문 김완규 도의원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은 제 의정 활동의 중요한 목표이다. 한센인들이 겪어온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존중받는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



학술부문 김재형 교수

2005년 인권위의 한센인권실태조사부터 시작해 2021년 [질병, 낙인]이라는 책으로 그동안의 연구를 가름했으나, 앞으로도 한센인의 자녀 문제와 역사적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에 대한 연구 등 한센인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



언론부문 장현은 기자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그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이 상은 더 열심히 글을 쓰라는 무거운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봉사부문 강인택 본부장

청년 시절 처음 나자로 마을에서 식사 봉사를 시작으로 함께했던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의료부문 김소정 주무관

한센인의 생활안정 · 질병치료 · 정서안녕을 돕고, 한센인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으로 한센인이 차별 없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공적내용

복지부문



김완규 도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적내용

한센인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차별 해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센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복지부문



김재형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적내용

한센인(병)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혐오와 낙인,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수많은 연구를 통해 한센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변화에 이바지함

복지부문



장현은 기자
(한겨레신문 사회부)

공적내용

한센인 인권연대 운동 및 실태에 관한 보도를 통해 한센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에 이바지함

봉사부문



강인택 본부장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

공적내용

한센병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한센인의 인권 증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의료부문



김소정 주무관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
감염병관리팀)

공적내용

한센병 예방 관리 및 의료·복지사업 등 업무를 책임감 있고 헌신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센병 관리 사업에 크게 이바지함

올해의 한센인 대상



박행남 이사
(한국한센총연합회)

공적내용

굳은 재활 의지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었고, 한센인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함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장 소 국회 도서관 강당
주 최·주관 한국한센총연합회, 조계원 의원
후 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 MBC KBS SBS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장 소 국회 도서관 강당
주 최·주관 한국한센총연합회, 조계원 의원
후 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 MBC KBS SBS


주 최·주관 한국한센총연합회, 조계원 의원
MBC KBS SBS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2024년 12월 9일(월) 국회도서관 강당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행사지원금 현황

소 속	성 명	금 액	소 속	성 명	금 액	소 속	성 명	금 액
회장	이길용	2,000,000	성혜마을	박판수	200,000	성곡마을	안경순	200,000
고문	정상권	1,000,000	성심마을	김창일	100,000	성생마을	임광묵	100,000
고문	박정수	500,000	향촌마을	김형모	300,000	성광마을	민병근	100,000
고문	박명웅	300,000	금호마을	곽선미	100,000	방주교회	김두형	1,000,000
고문	김정명	500,000	성신마을	김진국	200,000	금오마을	정기호	300,000
이사	김종열	200,000	다온마을	강창모	100,000	신애마을	김덕연	100,000
이사	정기호	500,000	다온마을	이태성	100,000	다온마을	조희현	100,000
이사	박형남	1,000,000	포천장자마을	최종국	1,000,000	신광마을	김봉진	100,000
이사	김형모	300,000	신암마을	박귀섭	200,000	성애마을	김기준	100,000
이사	박형남	300,000	신흥마을	김금화	200,000	협성마을	유경도	100,000
이사	정서기	300,000	신촌마을	김영훈	100,000	거창마을	신동은	100,000
이사	최정기	200,000	희망마을	강완주	200,000	소혜마을	허태관	200,000
이사	최연규	1,000,000	삼청마을	채용태	100,000	여명마을	안외찬	300,000
이사	김태성	100,000	신생마을	최정기	300,000	소아마을	이호석	200,000
이사	김맹환	100,000	덕촌마을	정서기	300,000	득성마을	김영애	200,000
후원회장	김정남	2,000,000	현애마을	이계호	200,000	칠곡마을	홍완근	500,000
서울지부장	박우택	200,000	호혜마을	윤재갑	100,000	신촌교회	-	300,000
부산지부장	정경욱	200,000	여천마을	이희우	100,000	낙산마을	박건영	200,000
인천지부장	권태우	500,000	천성마을	김매수	200,000	광명마을	배은자	100,000
경기지부장	최광현	500,000	천성마을운영위원장	김매수	200,000	성생마을	이길용	2,000,000
전남지부장	지재운	200,000	신락마을	김창렬	100,000	한국한센복지협회	김인권	1,000,000
전북지부장	김필중	200,000	경인마을	도정옥	500,000	(재)티엘엠복지선교회	조을연	1,000,000
경북지부장	안영칠	300,000	영민마을	김형철	100,000	(주)제이홀딩스	-	1,000,000
경남지부장	이상용	200,000	경성마을	정덕만	100,000	대구애락원	-	1,000,000
정애마을	김희주	200,000	재생마을	정복열	100,000	남양주녹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1,000,000
성생마을	김정향	100,000	성생마을운영위원장	윤영남	100,000			
헌인새마을추진위원회	서춘관	300,000	용호마을	박현석	300,000	화도농협	-	500,000
고운마을	강영숙	200,000	영락마을	신재문	300,000	변호사	조영선	100,000
충광마을	최종현	100,000	부평마을	권태우	500,000	前경기지부장	이주상	200,000
보성마을	김 용	300,000	상신마을	박노희	100,000	예수원교회	윤화현	500,000
비룡마을	김만기	200,000	성생마을	박정수	100,000	-	이동욱	100,000
신촌마을	이인식	150,000	경애마을	김진남	100,000	무궁화운동본부회장	윤영오	100,000
산성마을	이선규	100,000	협동마을	정기환	200,000	화도새마을금고	-	200,000
경호마을	이상구	100,000	성진마을	홍순권	100,000			

※ 위 명단은 무순이며, 후원자 또는 금액이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총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와 경제적 취약성 심화 2024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우리 총연합회는 지난 6월부터 81개 한센인 정착마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2024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정착마을 한센인들의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해 향후 정책 개선과 맞춤형 지원책 수립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는 총연합회 산하 시·도 지부의 협조를 받아 정착마을 대표자들이 직접 작성한 설문지와 전화 면담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을 개선했다.

특히 설문 문항에 '기타 건의사항' 항목을 의료 정책, 생계 및 재산, 시설, 한센인 정책, 기타 등 다섯 가지로 세분화해 구체적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화 면담을 통해 설문지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며 다양한 현실을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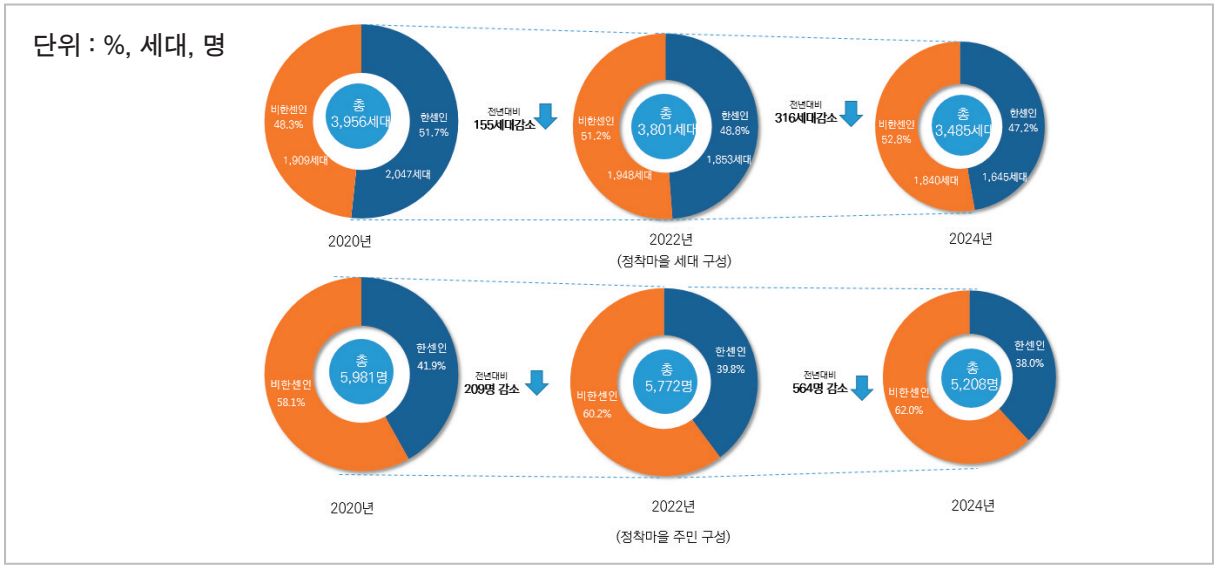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정착마을 한센인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착마을 한센인 1,981명 중 95.5%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나타났으며, 81세 이상의 초고령층은 49.2%에 이른다. 반면, 80세 이하 연령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경제적 취약성과도 직결되고 있다. 조사 결과, 정착마을 한센인 중 80.6%(1,596명)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91.5%(1,813명)는 한센인 피해사건 위로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착마을 한센인들은 고령화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 환경과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생활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설문조사와 면담에서는 경제적 지원 확대와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다수 제기됐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정착마을 한센인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착마을 한센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며, 한센인들이 겪는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총연합회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한센인 정착마을의 고령화와 열악한 생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4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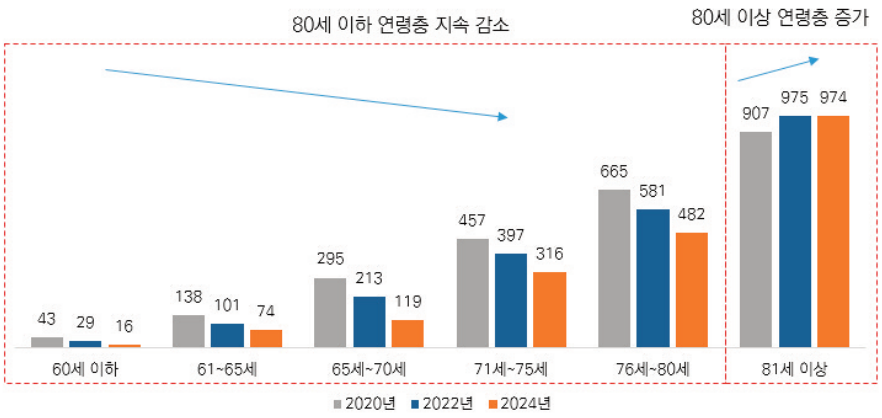


2024년 현재, 정착마을의 한센인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195세대, 315명이 줄었다. 특히 전북 지역에서는 한센인 수가 625명에서 542명으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81세 이상 한센인이 49.2%(974명)로 가장 많았으며, 76세~80세가 24.3%(482명)로 뒤를 이었다. 정착마을 한센인 중 95.5%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서울·부산·인천·울산·충북 지역은 전원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80세 이하 한센인은 202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80세 이상 한센인은 2020년 대비 7.4%(67명) 증가해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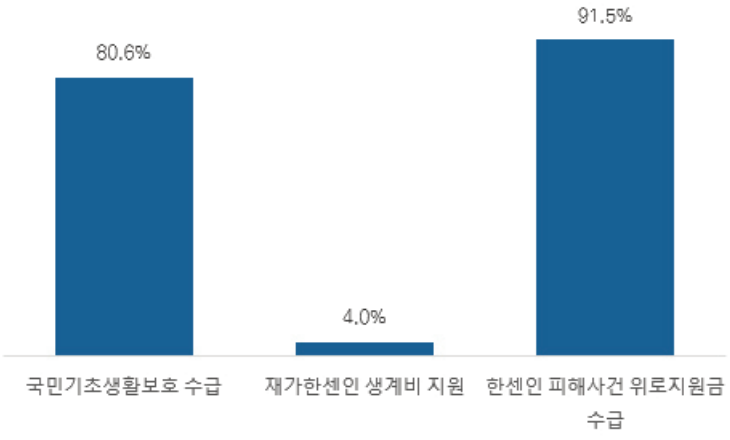
단위 : 명



한센인 연령 분포

총 1,981명의 한센인 중 1,596명(80.6%)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계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79명(4%)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을, 1,813명(91.5%)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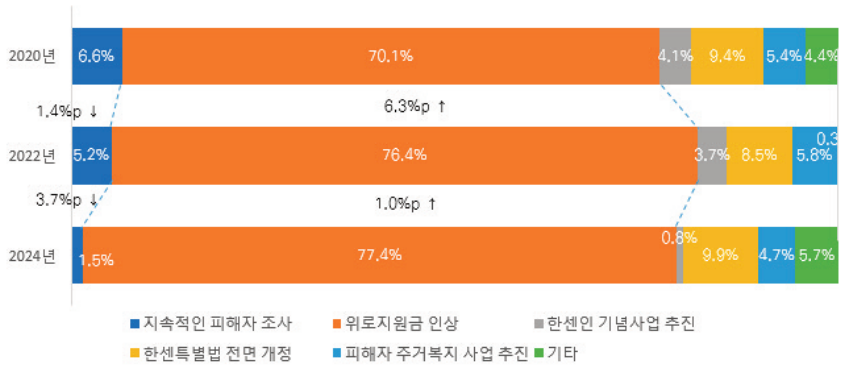
단위 : %



지원금 수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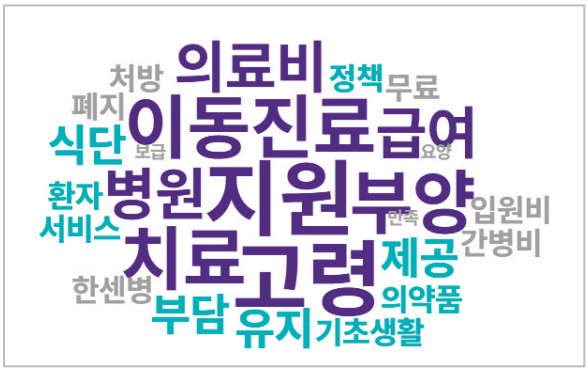
한센 관련 법률에 대한 복지욕구는 '위로지원금 인상'이 77.4%(1,533명)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다. 반면 '지속적인 피해조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단위 : %



한센 관련 법률 복지욕구

의료 정책과 생계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이동 진료 횟수 확대', '이동 진료 과목 확대'등 이동 진료와 관련된 의견이 많았다. 또한, '최신 약 제공'. '의료비 확대 지원'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생계 및 재산과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 폐지', '각종 공과금 면제', '생계비 지원'등이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나타나, 한센인들의 생계 안정과 의료 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센 현안 사항 협의



우리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과 우홍선 사무총장은 11월 21일 전현희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한센인들의 건강 및 복지 증진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통합 실현을 위한 지원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에 초청했다.

또한 한센인 민원과 관련하여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생활지원금)인상' 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금 인상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한센인들을 위한 복지사업 및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총연합회는 현재 정부의 예산 과부족으로 국가 사업의 예산 증액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위로지원금'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지원금 인상을 통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제22회 국제한센병학회 개최 예정

제22차 국제한센병학회(ILC)가 2025년 7월 5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학회는 "한센병 없는 세상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며, 한센병 퇴치와 의미 있는 발전 및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한센병학회(ILC)는 3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 학술회의로, 전 세계 한센병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와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 환경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 학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센병 퇴치를 넘어, 한센병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다.

일시 2025년 7월 5일(토)~9일(수) **홈페이지** ilcbali2025.com

장소 시설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 센터(Bali Nusa Dua convention Center)

한센인들의 '권익 보호'와 '희망'을 위한 시·도 지부장회의

11월 14일 인천지부 일대에서 이길용 총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시·도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센인 2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센인 가족 피해보상 및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개최 관련 사항이 논의 되었으며, 시·도지부에서 정착마을 한센인 등 많은 관련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한센인 가족 피해보상과 2세 권익 보호를 위한 추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각 시·도 지부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총연합회와 각 지부가 하나로 뭉쳐 한센인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위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센병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 및 현장점검 실시

2024년 하반기 한센병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 및 현장점검이 11월 22일 질병관리청 박수진 선임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동 점검은 국가한센병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센병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 방향 및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질병관리청의 주관으로 매년 2회 실시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사업 운영 현황, 사업 실정, 예산 사용 내역, 물품 구비현황 및 기록물 작성·보관 상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024년 한센사업 외부평가 회의



우리 총연합회는 11월 20일 이룸센터에서 한센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총연합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연합회 한센사업 외부평가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총연합회는 지난 50년 이상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통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해오고 있다.

이번 외부평가 회의에서는 총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센사업에 대한 사항을 공유하고 평가하였으며, '한센인 및 한센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를 통한 인권 향상', '한센인(병) 관련 역사 보존', '한센인의 한센시설 및 소록도 입소를 위한 방안', '소록도의 역사적 가치를 유산화 할 수 있는 논의' 등 앞으로의 한센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이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자연)는 "한센인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일반 국민이 관람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더불어 김재형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한센인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한센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센가족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기에 국가 한센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라며 “한센인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념관과 추모관 등의 건립이 필요하고, 한센인에 대한 자료는 극히 미비한 상황으로, 역사적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센인 구술을 기록하여 역사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길용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여 한센인의 복지증진 등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한센인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센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역사적으로 한센인에게 가해진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우리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한센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편견과 차별을 불식시키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희망을 밝히는 사랑의 합동결혼식



우리 총연합회는 11월 5일 베이스(서울 서대문구)에서 한센인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2년 최초로 진행되어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한센인 합동결혼식은 경제적 곤경,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온 한센인 가족의 욕구 부응과 사회적 복지 지원의 하나로, 한센인의 사회·심리적 재활 및 사회적 편견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결혼식에 참석한 5쌍의 신랑·신부에게는 이동, 메이크업, 의상(드레스와 턱시도), 실·내외 결혼사진 촬영, 1박의 호텔비용 등 결혼식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결혼식에는 이길용 회장을 비롯한 김필중 전북지부장, 안영칠 대구·경북지부장과 신랑·신부 가족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화촉을 밝히는 자리를 빛냈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이번 결혼식을 계기로 각 가정이 새로운 마음으로 힘찬 삶을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더 많은 한센인 부부가 참여하여 더욱 풍성한 결혼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결혼식을 마친 후 한 커플은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설레였고, 오늘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라며 “이렇게 뜻깊은 결혼식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행복하게 잘 살겠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한 정착마을 치매예방교육

총연합회는 정착마을 한센인들을 위한 치매예방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1일 소아마을(대표 이호석)에서 치매예방교육을 종강하고 올해 교육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정착마을 4곳에서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소아마을에 앞서 성곡마을(대표 안경순), 부평마을(대표 권태우), 낙산마을(대표 박건영)에서 교육이 완료됐다.

치매예방교육은 각 마을 별로 15회기 동안 진행되었으며, 고령의 한센인들에게 치매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소아마을은 한센인 인원이 적어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마을로, 노인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된 치매예방교육에 마을 어르신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교육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은 한센인들의 신체적인 불편을 고려하여 진행되었고,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자존감 향상과 우울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소아마을의 대표는 “어르신들의 활동이 줄어들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 상황에서 치매예방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다. 앞으로도 총연합회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활력을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정착마을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한센인들이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며 “소아마을 한센인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삶의 활력을 찾은 모습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총연합회는 고령 한센인들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소아마을 치매예방교육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1 일본 한센 가족들에 대한 보상 판결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 · 노동을 당한 한센피해자들에게 일본 한센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음
이후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상청구소송 또한 2019. 6. 28. 승소 판결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2019. 11. 15. 한센병원환자가족보상법을 제정하여 한센인 가족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격리 정책으로 인한 한센 가족 피해를 인정하고 사죄 · 반성을 표하면서, 한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그 명예 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센가족보상법 제정

2 보상 청구의 내용

보상금은 친자, 배우자 180만엔, 형제자매 130만엔 등
청구시한은 2029. 11. 21.까지(한시법)

3 보상 대상자

가족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하 대상자)는 일제강점기하에 한센병이 발병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이하 원환자)의 가족이어야 하며, 1945. 8. 15.이전 출생자로서 생존하고, 한센병 발병여부 불문(한센인, 비한센인 여부 불문),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혼인일이 1945. 8. 15. 이전이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 원환자는 1945. 8. 15.이전 발병자로서 소록도 입소 및 사망 여부 불문, 원환자가 일본으로부터 소록도 보상을 받은 경우도 가능(대상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

4 청구시 필요 서류(예시)

❶ 원환자 일제하 한센병 발병사실 증명서류
- 한센등록(관리)카드, 한센사업기록표, 나병력자 관리카드, 소록도 입소 증명서, 교적부, 세례명부, 소록도 보상결정문 등

❷ 대상자가 원환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일제 또는 해방후 구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❸ 대상자가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 생존한 사실
- 주민등록 초본

❹ 대상자 은행계좌 사본

❺ 기타 입증서류

5 안내 및 문의

현재 한국 변호사들은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을 구성(단장 조영선 변호사)하여 일본 변호단과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음 2024. 12. 12. 기준 152명(1차 62명, 2차 63명, 3차 14명, 4차 1명, 5차 3명, 6차 5명, 7차 4명)의 서류를 일본에 송부하였고, 84명이 보상 결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보상심의 중임
한센인 가족 피해보상은 한센인과 그 가족들이 당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보상임
청구인이 고령자이므로 신속하게 서류 준비 필요(청구인은 일본 정부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 기준으로 생존해야 함)

문의사항	한국한센총연합회
전 화	1566-2339 / 팩스 : 1566-2032

영국 에덴프로젝트팀, 익산마을 생태복원 가능성 탐색



전북지부(지부장 김필중) 산하 익산마을(대표 박형남)은 생태복원의 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영국 '에덴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11월 3일부터 6일간 방문했다고 전했다.

에덴 프로젝트는 2001년 영국 콘월의 방치된 폐광지역을 세계 최대의 친환경 온실 정원으로 탈바꿈한 생태복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침체됐던 콘월 지방은 에덴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환경 복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양면의 성공을 거뒀다.

2021년에는 영국 왕실이 콘월 에덴 프로젝트에서 G7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계적인 환경복원 성공 사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어 설립된 '에덴 프로젝트 인터내셔널(EPIL)'은 현재 중국 칭다오(청도)에 '뉴-에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 익산마을을 생태교육의 장으로 복원하고자 에덴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하게 됐고, 현재는 시와 정부가 토지매입을 통해 환경 복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익산시는 영국 에덴 프로젝트를 실제 방문해 익산마을에 '뉴-에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이번 답방은 앞선 협의와 관련해 실제 현장을 살펴보는 후속 교류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일정 동안 에덴 프로젝트팀은 익산마을 축사 매입부지와 주변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앞서 콘월에서 성공했던 경험을 토대로 익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태복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마을의 자연환경 복원과 그 가치 확산을 위해 오랜기간 행정력을 집중해왔다.”라며 “이번 에덴 프로젝트팀 방문을 계기로 익산마을이 생태교육의 모범사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전북지방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생태우수지역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전략으로는 ▲자연환경 복원 및 자연 자본 가치 확대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확대로 주민 상생 방안 마련 ▲자연공존지역(OECM)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총연합회 전북지부 김필중 지부장은 “익산마을은 단순히 복원을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라, 한센인들의 아픔과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 복원뿐만 아니라 그간 외면받았던 한센인 공동체의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에 익산마을 박형남 대표 또한 “한센인 공동체가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고, 이번 에덴 프로젝트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지역 주민들의 상생과 환경 복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시도는 익산마을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재탄생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익산 지역사회와 한센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지부, 한센인 복지 향상 위한 대표자 회의 개최



총연합회 산하 경기지부(지부장 최광현)는 11월 12일,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을 비롯하여 경기지부 소속 정착마을 대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지부 하반기 업무 보고와 기타 안건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경기지부가 향후 추진할 사업과 중요한 행사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센인들의 복지 향상과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센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더불어, 경기지부 소속 정착마을 대표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내 한센인들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최광현 지부장은 “경기지부는 앞으로도 한센인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정착마을 대표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센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장 이·취임식 개최





▲김종필 연구원장

한국한센복지협회는 10월 25일(금) 협회 교육관에서 본부 임직원 및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원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임기 동안 깊은 애정과 열의를 가지고 한센병관리사업에 헌신한 전종한 연구원장의 이임식이 있었으며, 신임 연구원장으로 전 강원대학교 피부과 진료교수 김종필 연구원장이 취임했다.

김종필 연구원장은 20여 년간 우리 협회 연구원에서 한센인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와 피부질환 진료에 매진한 바 있으며 “직원들과 소통하며 심도 있는 연구와 사업 환경 조성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창립 30주년 기념 및 후원의 날 행사 개최



한국IDEA협회(대표회장 정상권 장로)는 10월 24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 홀에서 '창립 제30주년 기념 및 후원의 날'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관기관 단체장, 후원교회 및 후원자, 선교사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감사예배는 정상권 대표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라도재 상임고문의 기도, 홍완근 한국한성장로회연합회장의 성경봉독과 전계헌 목사(증경총회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의 설교, 안영칠 공동회장의 광고, 김종준 평남노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이어 진행된 2부 기념행사는 정채혁 후원회장의 사회와 박명웅 후원회장의 개회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정상권 회장의 인사와 제24회 국제IDEA봉사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염채화 공동회장의 환영사와 부총회장 장봉생 목사의 격려사, 한국한센총연합회장 이길용 장로, 전국장로회연합회장 오광춘 장로, 서북지역노회협의회 명예회장 김상윤 목사, 기독신문사장 태준호 장로, 장로신문사장 강대호 장로, 서울·서북지역장로회연합회장 안재권 장로, 전국원로·은퇴장로회연합회장 박석환 장로, 전국남전도회연합회장 배원식 장로, 서울·서북지역남전도회연합회장 신웅철 장로의 축하 인사와 상임부회장 하정민 장로의 내빈소개 후 운영위원 이광희 장로의 폐회 및 감사기도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정상권 회장은 “행사에 참석해 주신 후원자들과 선교사들께 감사드리며, 1994년 전 세계 한센인들의 경제자립과 인권회복을 위해 단체 설립 후 30년을 함께 해주시고 헌신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과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 공로패 전달 (좌측부터 라도재 상임고문, 정상권 회장, 배영순 권사)

한편 창립 30주년을 맞아 진행된 제24회 국제 IDEA 봉사상 시상식에서는 협회 선교를 위해 헌신해 주신 서기행 목사(대성교회 원로)와 이용철 목사(북방선교회장)에게는 감사장을, 편찬위원장 염채화 장로(공동회장)와 홍완근 장로(한국한성장로회연합회장)에게는 IDEA 봉사상(선교부문)을, 조순자 권사(故 하태초 장로), 박태남 권사(故 허돈 장로), 김혜순 권사(故 문석민 장로)에게는 감사패를, 정영란 권사(사무국장)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했으며, 국제IDEA협회 본부에서는 전세계 IDEA 회원들을 대표해 정상권 장로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한국IDEA협회는 행사를 마친 후 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사진으로 보는 30년사’ 책자와 기념품을 후원자들에게 선물하며, 30년의 발자취를 기념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즐거운 두뇌 운동과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센터장 송정하) 어르신들의 두뇌와 신체 건강을 돕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에 소개할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틀린그림찾기'와 창의적 경험을 제공한 'LED 조명등 만들기'이다.

▣ 틀린그림찾기 프로그램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된 틀린그림찾기 프로그램에서 어르신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하게 다른 그림을 찾아내며 집중했다.

이 과정은 눈과 두뇌를 함께 사용하는 활동으로, 그림을 꼼꼼히 비교하며 틀린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어르신들은 끝까지 끈기와 집중력을 발휘하며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틀린그림찾기 프로그램은 치매 예방과 두뇌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단순한 오락 활동을 넘어 두뇌 자극과 동시에 성취감을 느끼는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 LED 조명등 만들기 프로그램





LED 조명등 만들기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에게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했다. 각자 개성 있는 LED 조명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손과 눈을 사용하는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신체 활동이 촉진되고 집중력과 창의력 발휘가 가능했다.

어르신들은 바닷가를 연상시키는 투명 스티커를 오려 병에 붙이고, 색깔 있는 돌을 채워 병을 아름답게 꾸민 후, 코르크 형태의 LED 조명을 병 안에 넣어 불을 밝히며 자신만의 LED 조명등을 완성했다. 이 과정은 간단한 재료를 활용해 개성 넘치는 작품을 만드는 즐거움을 제공했으며, 어르신들은 완성된 조명등을 통해 자신만의 소중한 작품을 손에 쥐고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더불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늙음의 세월

박우택 (서울·중부지부장)

늙음의 세월은
외로움이 아니라
그리움이겠지요

한 많은 세월 속에
가버린 청춘
못다 한 첫사랑

모두가 지나간 후엔
그리워지는 법이지요

추억을 먹고 사는 늙음의 세월
나그네 인생길
과부 사정 홀아비가 알 듯

함께 늙어가는 통하는 친구 있어
나는 참 행복하네



신생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





김승하
(한국치매예방협회 김해 지부 대표)

너무 더우면 어르신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힘들까 봐 여름이 조금 남은 8월 20일에 첫 교육을 하기로 하고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유난히 덥고 긴 여름을 보내게 되었다.

일주일에 두 번 총 20회기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첫 교육은 건강증진과 낙상 예방 교육이 진행되었다. 일방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 형식으로 신체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했더니 어르신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백업봉을 활용한 풍선 치기로 배드민턴을 연상시키면서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하고 근력을 강화하고, 순발력까지 상승 하니 이만한 운동도 없을 듯하다. 양**어르신은 “얼마만에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열정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다.”라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자”라고 말씀하셨다.



교육이 진행되고 한참 뒤에 들어오시던 어르신이 3회 교육부터는 시간에 맞추어 오시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승부욕에 불타오르기도 하면서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발견한 듯 즐기신다.

인형극 감상과 체험활동 시간에는 풍선 인형극 막이 펼쳐지니 신기해하시며, 삼삼오오 모여 앉아 ‘김수로와 허왕후’ 인형극을 관람하고, 역할극에는 대사도 창의적으로 하여 관객인 다른 어르신들에게 한바탕 큰 웃음을 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을 준비하길 참 잘한 듯하다.

야심 차게 준비한 차 문화 테라피 교육 시간이었다. 미리 준비한 야생화와 다양한 화병에 차와 함께 먹을 떡과 단감까지 준비하여 다도를 나누었다. 어르신들이 직접 화병에 꽃을 꽂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다도 예절도 배우고 향기로운 꽃차에 다식 다과로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다며 이렇게 우아하게 차를 마신다고 좋아하는 모습에 준비한 보람을 느꼈다.

"집에 꽃병 가지고 가서 야생화도 꽂고, 보리차도 좋으니 따뜻하게 차 한잔하세요."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신다.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드리려고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보람을 느꼈으며 강사들이 행복을 누렸다.

1시간 정도의 거리를 달려올 때 처음에는 멀다 느꼈는데, 화요일과 목요일은 자연스럽게 신생마을로 달리고 있었다. 도착하면 정자에 앉아서 손 흔들며 반겨주시는 모습, 집에 갈 때면 잘 가라고 또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에 힘을 얻었다.

마지막 날 교육을 위해 수료증과 개근상을 준비하고, 선물을 챙기면서 벌써 끝이 난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많이 들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오신 김**어르신께 개근상과 수료증을 드리니 이걸 받아도 되냐고 하셨다. 강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니 "내가 더 고맙다."라고 말씀하셨다.

"강사님 정말 수고했어"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과 "계속하면 안되냐?"라고 물어보시는 어르신도 계셨다. 김**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맙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사는 겨우 눈물을 참았다.

정이 많은 신생마을 어르신 때문에 이번 교육은 더욱 특별했다.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리면서 신생마을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전한다. "건강하세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신생마을 이덕수 노인회장

"금번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노년 생활플러스교육이 상당히 좋았고, 우리들의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강사님의 열정 넘치는 교육으로 많은 생활에 도움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저희들의 노년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아마을 치매예방교육에서 피어난 미소





박우연
(미래로교육연구소 소장)

소아마을 치매예방교육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은 한 어르신'이 있다. 어르신은 두 번째 교육에서 "자꾸 웃으라 하면 여기 안 나올 거요."라며 매섭게 말씀하셨다. 순간, 그 한마디에 담긴 깊은 상처와 고통이 느껴져 내 마음도 무거워졌고, 앞으로의 교육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과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3회 차 교육에서는 붓펜을 나눠 드리고 글씨 쓰기를 시작했을 때, 어르신은 "손도 안 좋은데 공부하는 건 못 해요."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따라 적으시면 돼요."라고 부드럽게 말씀드리며 용기를 드렸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어르신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셨고, 글씨를 따라 적으며 몰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아크릴 부채에 가훈을 적으며 혼잣말로 "이런 것도 재미있구나!"라고 하셨을 때, 나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며 "어머니, 그러시죠? 어렵지 않죠?"라고 웃으며 다가갈 수 있었다.

6회 차 교육에서는 클레이로 양반탈을 꾸미는 활동이 있었다. 어르신은 다른분들과 달리 자신만의 작품에 몰두하셨고, 색감과 표현력이 돋보였다. “어머니, 색 감각이 정말 좋으세요!”라고 말씀드리자, 어르신은 잠시 추억에 잠긴 듯 “나는 이런 게 참 좋아. 어릴 때도 강에서 진흙을 파 와서 만들기를 좋아했거든. 아버지한테 잘한다고 칭찬도 받았었어.” 라고 말씀하셨다. 어르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도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14회차 교육에서는 꽃바구니를 꾸미는 활동이 있었는데, 어르신은 정성스럽게 꽃바구니를 꾸미며 깊은 몰입의 시간을 가지고 계셨다. “어머니, 지금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라고 여쭈었더니,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 나에게 이런 꽃바구니를 선물로 만들 날도 있네. 참 감사하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하신가요?”라는 질문에,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감사하네.”라고 답하셨고, 그 말을 들은 곁에 계신 어르신들도 “맞다. 생전 처음 꽃바구니를 만들어 보네.”라며 서로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품고 살아간다. 소아마을 어르신들도 저마다 상처를 극복하고, 고통을 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왔을 것이다. 마음에 생긴 상처는 이미 삶의 일부가 되었기에, 버리거나 극복할 수 없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어르신들의 고단했던 모습에서 삶의 엄숙함을 배우고, 감사를 배울 수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살피고, 보듬으며 더불어 살아가자는 말로 아쉬운 마무리를 해본다.

전봇대

김정현(안동성좌원 복지기획과 팀장)

김씨 할머니는 오늘도 1등으로 식사를 끝내셨다. 밥과 반찬을 모두 비운 식판에는 양념만 조금 묻어있을 뿐이다.

김씨 할머니는 한센병 때문에 시각 장애를 갖게 되었고 왼쪽 손가락을 모두 절단했다. 오른쪽 손가락도 오그라들어 자유롭지 않다. 겨우 손가락 끝 한 마디 정도만 조금 움직일 수 있다.

식사를 챙겨 드리면 손가락 사이에 포크를 끼워서 식판 앞쪽 반찬을 밥그릇 자리로 옮긴다. 포크 끝을 세워 식판 여기저기를 쿡쿡 찍어서 끝에 닿는 느낌이 있으면 남김없이 밥그릇으로 긁어모은다.

반찬을 다 모은 후에는 식판 모서리에 입을 대고 밥과 반찬을 같이 입으로 가져간다. 밥과 반찬을 다 드시고 나면 국물을 마시고 건더기도 남김없이 포크로 긁어서 입에 넣는다. 앞을 못 보니 밥을 늦게 먹는다는 핀잔을 들을까 봐 허겁지겁 식사하는 버릇이 몸에 배어 버렸다.

급하게 드시느라 음식을 많이 씹지 않고 대충 삼킨다. 그래서 이 사이에 찌꺼기가 많이 낀다. 식판을 물리자마자 양치질을 하시지만 완벽하게 빠지지 않는다. 손가락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쑤시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궁하면 통한다던가. 할머니에겐 전용 이쑤시개가 있다. 이름하여 '전봇대'.

처음 요양실로 부서를 옮겨서 식사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김씨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김 선생, 서랍에서 내 전봇대 좀 꺼내줘.”

머리맡에는 2단짜리 작은 서랍밖에 없는데 5m가 넘는 전봇대를 어떻게 넣었길래 꺼내달란 말인가. 잘못 들었는가 싶어 다시 물어봤지만, 전봇대가 맞다고 하신다.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니 깔깔깔 웃으신다. 눈물까지 찍어내며 한참 웃으시더니 서랍에 나무젓가락 비슷한 게 있으면 꺼내보라 하신다.

서랍 속 물건을 꺼냈다. 나무젓가락 양쪽을 뾰족하게 깎아 놓은 모양이 일반 이쑤시개를 스무 배쯤 확대해 놓은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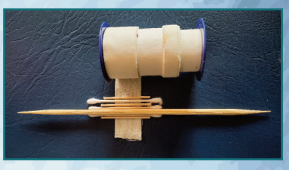
“이게 왜 전봇대예요?”
“몰라, 옛날부터 그냥 그래 불렀어. 놀랬재?”
“아유, 난 또 요양실 앞에 전봇대 뽑으러 가려 그랬잖아요. 히히히.”

그 후 나는 할머니의 전봇대 관리를 도맡았다. 입속에 사용하는 물건이니만큼 깨끗하게 보관하고 자주 새것으로 바꿔드려야 한다. 일부러 끝이 덜 무디어지는 대나무 젓가락을 구해서 전용 칼로 꼼꼼하게 깎는다. 가운데에는 면봉을 두툼하게 둘러서 잡기 쉽게 했다.

“할머니 새 전봇대 왔어요. 써 보세요.”

“좋다. 손에 꼭 맞는다. 김 선생이 챙겨주니 든든하다.”
“전봇대는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테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많이 드세요. 꼭꼭 씹어서요.”

잔소리 시작한다며 나를 쫓아내시면서도 싫지 않은 목소리다.
한센병력이 있는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모여 살면서 당신들만의 독특한 정서와 문화를 만들어 오셨다. 특히 “전봇대”와 같이 불편한 손발을 도와줄 신박한(!) 생활도구들이 많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오신 증거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모시는 동안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전봇대”가 되고 싶다.

한센병 바로 알기

한센병이란?

- 나균에 의한 만성감염병이지만 나균에 대한 면역기능이 아주 약한 경우에만 발생되고, 조기에 진단하여 조기치료를 시작하면 후유증이 거의 없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한센병 증상

- 가장 보편적인 증상은 피부가 퇴색되거나 붉은색 등으로 침착된 반점이 나타납니다.
- 가렵지는 않지만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아프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 상처나 화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또한 피부 병소가 생기기 전에 신체의 주요 신경을 잠식하여 신경통 증상으로 임파선이 붓고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증상이 오래될 경우 손가락, 발가락 등에 힘이 없고 구부러지기도 하며 눈썹이 빠지기도 합니다.

한센병 치료시 주의사항

- 처방약물은 규칙적이고 정확히 드셔야 합니다.
- 약물투약 중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지러움, 피부염, 피부착색, 오심, 설사, 위장장애, 두통, 현기증, 불면 등)
- 기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중단하고 진료 받은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한센병 관리를 위한 권고처방은 다양합니다. 담당 선생님과 의논 후 투약 처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권고처방을 통한 정확하고 빠른 한센병 치료로 최상의 치료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센병, 궁금해요!

Q1 **한센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요?**

아니오.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Q2 **부정군(不定群)나는 무엇을 말하나요?**

- 한센병의 한 개 또는 소수의 명확하지 않는 병변이 나타나며, 피부반점이 얼굴, 사지, 엉덩이 등에 발생하며 감각소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 부정군나의 증세는 향후 결핵양형나 또는 나종형나로 진행되기도 하며, 때로는 자연 치유되기도 합니다.



Q3 한센병의 나반응이란 어떤 것인가요?

한센병의 면역학적 변화에 따른 급성 염증 반응이며,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합니다. 나반응은 새로운 감염 없이 급성염증이 때로 심하여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환자의 약 25%에서 관찰됩니다.

Q4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한센병은 치료 가능하며, 완치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한센병은 답손, 리팜피신, 클로파지민 등의 약물을 병용하여 치료합니다. 이 치료를 적기에 하게 되면 조기에 나균이 사멸 되어 한센병이 완치됩니다.

자료출처 : 2024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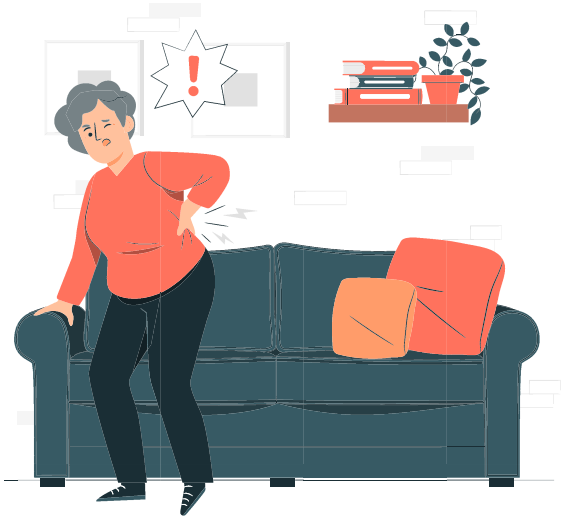
오래된 허리 통증, 한의학으로 개선한다

[출처 : 경희의료원보 프러포즈 2024년 가을호 VOL. 451 中]

글. 곽한나 사진. 안용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홍예진 침구과 교수



허리부터 다리까지 터질 듯이 아픈 증상으로 그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고생했던 어르신 환자가 찾아왔다.

환자는 이미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나이가 있어 차마 수술은 못 하겠다며 울상이었다. 상태를 보니 허리와 엉덩이를 잡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매우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홍예진 교수는 침 치료를 통해 굳은 근육을 풀었고, 환자의 오랜 통증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 전문 진료분야 |

척추질환, 견관절질환, 슬관절염, 만성통증(요통, 경항통), 교통사고 증후군, 체형교정

| 만성요통, 전신을 살펴봐야하는 이유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요통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허리를 잡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와 허리 쪽으로 기혈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생기는 전신적인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홍예진 교수는 국소적인 허리 구조 자체의 문제와 함께, 소화, 수면, 순환 등의 전신적인 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허리 통증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허리는 우리 몸의 기둥으로 자세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근육들이 많은데, 잘못된 자세나 과도한 부하가 가는 경우 단단하게 굳어 가동성이 줄어들게 된다. 초반에는 척추 구조의 변화는 없는 상태로 근육과 인대가 단단하게 뭉치는 정도이며,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반복된 동작을 하는 것 등으로 인해 증상이 나타났다 호전되는 것을 반복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척추 구조에 지속적인 압박이 나타나고, 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척추 사 이의 공 간이 좁 아진다든지(협착증), 척추 사이에 있던 디스크가 신경이 지나는 부위로 탈출(디스크)을 하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죠. 이로 인해 허리 통증은 더욱 심해지고,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홍예진 교수는 위와 같은 구조적 문제와 함께 전신적인 문제의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허리 쪽에 순환이 잘되지 않아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다.

"우리 몸의 기운이 부족해 허리가 약한 경우도 있고, 기운이 한 곳에 몰려 허리 쪽에 순환이 잘 되는 경우, 전신 순환이 잘 되지 않아 허리가 과도하게 뭉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개선하려면 소화나 수면, 생활 방식도 함께 변화해야 하죠."

홍예진 교수는 이러한 증상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서서히 척추를 잡고 있는 구조들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디스크, 협착증 등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한다. 구조가 변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초반부터 상태를 파악해 증상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 원인과 증상에 따라 달라지는 치료법, 생활 습관 개선도 필수



한방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만성 요통 증상뿐만 아니라, 허리가 약해진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시행한다.

“먼저 허리를 잡고 있는 인대와 근육에 경결이 있는 부위를 파악한 후, 침 치료와 전침치료를 통해 뭉친 근육을 자극해 줍니다. 연부조직의 유착이 심하다면 침도요법을 이용해 유착된 부위를 끊어내고, 풀어지게 할 수 있어요.”

홍예진 교수는 만성적인 통증이나 염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봉독약침’요법을 이용해 염증을 줄여 통증을 완화한다. 최근 한방치료에서도 초음파를 이용해 문제가 있는 부위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다.

“근육이 많이 약해진 경우라면 매선 치료를 통해 근육과 근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근육 성분의 재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전신적인 체형을 확인해 척추 배열에 문제가 있다면, 추나요법을 통해 틀어진 척추 배열을 바로잡아 줄 수도 있고요.”

홍예진 교수는 한약 치료를 병행하면 소화, 순환 등 몸의 균형을 맞게 하고, 허리 쪽의 순환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한다. 식생활, 운동, 자세 등 환자 맞춤형 생활 습관도 처방해 환자 스스로 몸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만성통증 입원 프로그램으로 치료 효과 극대화한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척추관절센터에서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 기존에 다른 치료로 잘 낫지 않는 만성적인 통증을 개선할 수 있는 입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침도요법, 초음파유도하 약침요법, 매선요법, 추나요법 등 다양하고 새로운 한의치료법과 개인별 맞춤 치료로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킨다.

“최근에는 초음파를 이용해 문제가 있는 부위에 약침 시술을 하고 있어요. 경결이 심해져 유착된 부분을 침도요법을 통해 끊어내는 시술도 함께 하면 더욱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녹는 실을 근육에 자입하는 매선 치료를 더한다면 지속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홍예진 교수는 온갖 시술을 받아도 증상이 재발해 치료를 포기한 분들에게 한의학의 비수술적 치료를 권한다. 통증으로부터 해방되고, 더욱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 있게 전한다.



| 주목, 이 수술

⦿ 침도요법

전통적인 침 요법의 '침'과 외과 수술요법의 '도'(메스)의 원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침도를 사용하여 유착된 부분을 박리, 절개하는 치료법이다. 만성적으로 손상된 연부 조직들이 인대와 근육부착점에 유착된 것을 박리하고, 조직의 연축으로 발생한 신경 포착 부위를 자극하여 손상 회복 기전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근육, 인대, 건의 재생을 촉진하고 신경 포착을 해소해 염증 회복에 도움을 주어 관절, 척추관 내의 압력을 줄여주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오해와 진실 Best 3



⊙ 허리가 늘 아프지만, 가만히 쉬면 좋아진다?

만성요통은 허리 주변에 불안정성이 생긴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 허리 주변의 근육과 인대는 계속 굳은 상태가 유지된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정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만성적인 허리통증, 수술이나 시술을 하면 좋아진다?

기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하고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허리가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증상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 번의 치료만이 아닌, 꾸준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침도요법의 부작용은 없을까?

침도는 유착된 부분을 박리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보통의 침 치료보다는 다소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시술 부위에 따라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필요시 초음파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으며, 숙련된 시술자에 의해 시술되는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조기사망’ 부르는 ‘미세플라스틱’ 혈관 속 미세플라스틱 줄이는 방법은?

⦿ 플라스틱이 혈관에?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플라스틱’, 우리 삶을 한층 편리하게 해준 플라스틱이 마주한 ‘불편한 진실’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작은 조각이 돼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고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혈관 속에도 들어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미세플라스틱?

5mm 미만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은 크기가 작아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 강으로 그대로 유입된다.

미세플라스틱은 처음부터 만들어지기도 하고(1차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이 분해(2차 미세플라스틱)되면서 생기기도 한다. 먹다가 강이나 바다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을 물고기가 먹이인 줄 알고 섭취하고,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 물고기를 인간이 섭취해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또한, 의류, 종이컵, 티백, 물티슈 등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일상용품 사용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혈관까지 침투!
미세플라스틱이 폐로 들어가면, 폐를 통과해 혈관으로 침투 가능!

⦿ 혈관에 미세플라스틱이 있다면?

뇌졸중, 심장병, 조기사망 위험 등이 4.5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뉴잉글랜드의학저널, 라파엘레 마르펠라 박사(캄파니아 루이지 반디텔리대학, 이탈리아 나폴리)

⦿ 혈관 속 미세플라스틱 줄이는 방법

☑ 빨래 자연 건조하기 (건조기 사용 시는 미세플라스틱 걸러내는 필터 사용)
☑ 조개 등 해산물 섭취 줄이기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 치약, 화장품 사용 시 미세플라스틱 없는 것 사용
☑ 비닐봉지 사용하지 않고 천 가방, 종이봉투 사용하기
☑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집안 먼지 털고 청소기 돌리기
☑ 가능하면 천연 소재 옷 입기
☑ 흠이 난 코팅 프라이팬 즉각 교체하기
☑ 카펫, 러그 등은 되도록 쓰지 않기

⦿ 위험한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은 혈관뿐만 아니라, 폐, 뇌, 각종 장기, 모세혈관 등 몸속 어디든 침투할 수 있다. 심지어 고환(정자), 태반, 모유 등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 가능한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아시나요? 겨울철 대표적인 심뇌혈관질환

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











심근경색증 골든타임 2시간!

조기증상 발현 즉시

119를 부르세요!

발행월 2024년 10월

질병관리청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아시나요? 겨울철 대표적인 심뇌혈관질환

뇌졸중의 조기증상!













뇌졸중 골든타임 3시간!
조기증상 발현 즉시
119를 부르세요!

발행월 2024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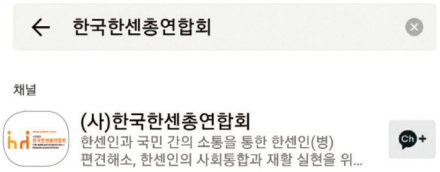
총연합회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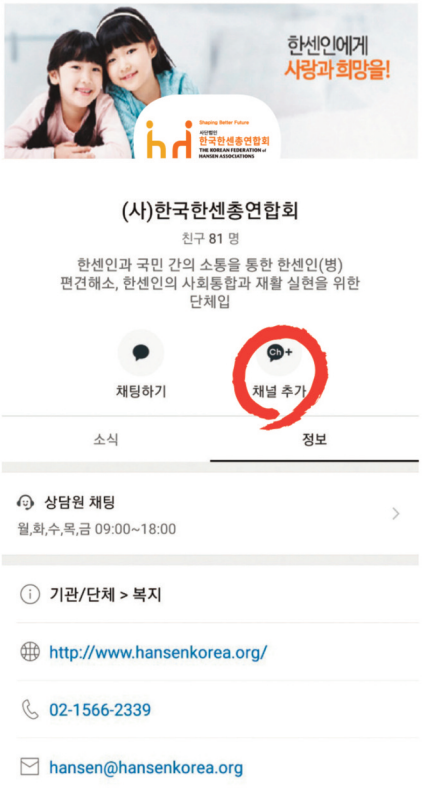
1.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한다.



2. 한국한센총연합회를 검색한다.



3.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소식 받아보기





언택트시대에도
당신의 온기로 채워지는
따뜻한 세상

QR 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이책

자료제공 : 교보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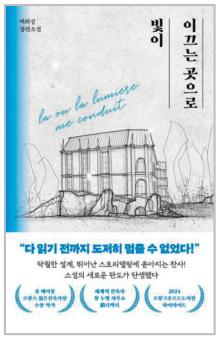
무엇이 나를 살아 있게 만드는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세상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삶을 위한 안내서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시들함에 빠졌나? 현대 정신건강 영역이 놓쳤던 것 '시들함languishing'은 '자존감, 의욕, 의미감을 약화시키는 정신적 쇠약함 상태'로 정의된다. '시들함'은 우울증이나 번아웃과 동의어가 아니며, 무관심이 그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저 지나가는 일상으로 치부하기 쉽다.

오랫동안 '시들함'과 '활력flourishing'을 연구해온 긍정심리학의 선구자이자 에모리대학교의 석좌교수 코리 키스Corey Keyes에 따르면 이 상태는 그리 만만히 볼 일이 아니다.

'시들함'에 빠진 사람은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고, 미래에 무엇을 원하는지가 불확실하며, 결정에 직면하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시들함을 방치하면 일상 기능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질환과 조기사망으로 이어지는 관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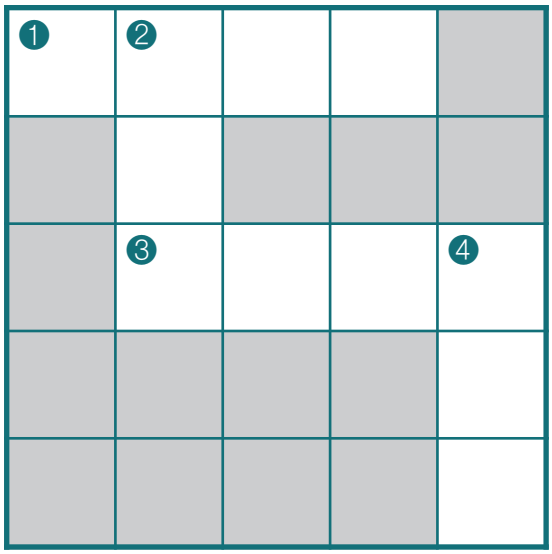
빛이 이끄는 곳으로

감동과 기적의 극적인 앙상블!
빛과 기억이라는 경이로운 설계로 펼쳐내는 천재 건축가 백희성의 첫 번째 장편소설

역사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 파리. 그곳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오래되고 아름다운 집 우편함에 "당신의 집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편지를 적어 넣은 괴짜 예술가가 있다. 아시아인 최초로 프랑스의 젊은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폴 메이몽 상을 수상한 천재 건축가 백희성. 그가 자료 조사와 집필에만 8년이 걸린 첫 장편소설 『빛이 이끄는 곳으로』를 내놓으며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건축가이자 작가이면서 다방면에서 예술가로 활약 중인 그는 파리의 저택 주인들로부터 답장을 받아 초대된 자리에서 집에 스며든 아름다운 추억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여러 저택에 찾아가 인터뷰한 내용들은 고스란히 이 소설의 글감이 되었는데, 건축가로 일해 오면서 어디서도 듣고 배운 적 없는 '진짜 집의 이야기'가 사람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온기 어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시 설계하여 한 권의 책이 완성되었다.

가로세로 낱말퀴즈



지난호 정답

				❸봉
❶대				사
❷한	센	인	대	회
민				
❹국	회	의	원	

가로세로 낱말 퀴즈

가로문제

❶ 총연합회는 한센인들의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정책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정착마을 ○○○○' 보고서를 발간했다. (P14 참조)

❸ '찾아가는 ○○○○'는 매년 전국의 정착마을을 순회하며, 한센인 정착마을에 문화 공연을 직접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센인과 비한센인 간의 문화 활동 격차를 해소하고, 한센인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로문제

❷ 태극 모양의 무늬

❹ 지구 전체를 한 마을처럼 여겨 이르는 말

참여방법

우편, 이메일, 총연합회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우편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아이리스빌딩 2층 (사)한국한센총연합회 한센지 담당자 앞
▣ 메일주소 : hansen@hansenkorea.org
▣ 카카오톡 : '한국한센총연합회'로 검색 및 채널 추가 후 정답 전송
▣ 보내실 내용 :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 정답(정답이 기재된 사진 또는 종이)
▣ 문의전화 : 02)1566-2339

한센 게시판

한센인(병) 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운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한센인 또는 한센병 관련 유물을 기증(서약)받고 있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	한센시설(병원) 생활유품 또는 기록	한센가족 후원 또는 봉사 관련 자료
한센가족 작품 (문학, 미술, 음악, 사진 등)	기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원고 모집 공고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응모 기간 : 상시 접수

▣ 원고 내용 및 분야

- 한센인 관련 미담, 에피소드, 봉사 수기
- 한센인 창작 또는 한센인 소재 문학 : 시, 소설, 수필 등 제한 없음
- 한센인의 생활현장, 민원 등 지역 소식
- 한센인 관련 정책 · 학술 · 역사 자료
- 한센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칼럼
- 기타 「한센」게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

▣ 응모 방법

• 제출처 : 총연합회 「한센」 담당자

-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 팩스제출 : (02) 1566-2032
- 이메일제출 : hansen@hansenkorea.org

• 전화문의 : (02) 1566-2339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후원회장 김정남

후원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 본부 및 지부 주소

지부명	전화	팩스	주소
중앙회	1566-2339	1566-203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서울 · 중부지부	(02)532-6777	(02)532-90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방배동 202호)
부산지부	(051)245-8207	(051)245-820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4번길 3
인천지부	(032)529-0900	(032)522-08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 41 (간석동)
경기지부	(031)973-5329	(031)973-317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 402호
전북지부	(063)542-7822	(063)545-7820	전북 김제시 갈공길 21
광주 · 전남지부	(062)524-3485	(062)524-3484	광주광역시 북구 버들로 23 동방빌딩 3층
대구 · 경북지부	(054)971-8975	(054)977-8975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4길 5
울산 · 경남지부	(055)584-4333	(055)584-4332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방어산로 618

‘한센’ 편집 자문위원

위원장	우홍선(사무총장)
위원	박영립(법무법인 최앤박 대표변호사), 신재균(법무법인 서해 변호사), 옥춘광(작가)
기획	전희진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안식처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는 고령한센인을 위한 노인 친화적 환경의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고령한센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공감을 포괄할 수 있는
전인적 관점의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 사례관리
- 인권개선운동
-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교류 활성화
- 지역사회 기여 실천
- 보편적 협력기관 확대
- 긍정적 환경마련

노후생활 안전보장
- 1:1 개별 서비스
- 요양·보호·여가 지원
- 안정적 생활환경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EVERGREEN WELFARE CENTER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116-15 | TEL : 043) 241-1300 / FAX : 043) 241-1302
E-mail : egwc1300@egwc.or.kr | 홈페이지 : http://www.egwc.or.kr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11·12월호

한국한센총연합회 질병관리청